

국힘 '돈봉투 전대 의혹' 맹공...민주 '송영길 귀국' 압박

송영길, 佛서 약식 브리핑 예고...당 중진들 '선당후사' 촉구 검찰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9400만원 살포 혐의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압박을 연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귀국 지연과 관련해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심송심이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동시에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자금을 댄 이른바 '스폰서'의 자녀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거론, "정녕 돈 봉투 불법 전당대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길 한 건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엄정 수사'라는 뒷걸개를 걸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돈 봉투 속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맹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돈 봉투 금액이 별거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쏟아내고 민주당이 도덕성을 스스로 짓밟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가는 것도 이 파문이 결국 이 대표까지 얽히고설켜 있기에 사전 차단이 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민주당은 송 대표의 빠른 귀국을 요구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를 향한 압박 강도나 발언 수위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자신 탈당에 강제 출당, 정계 은퇴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는 사측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 미련을 갖고 뉘가에 집착하는 순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나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당후사를 실천해 달라"고 했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상식에 반한다. 당 대표까지 한 분이려면 (한국에) 틀어와서 해명하는 고백이든 또는 반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은 뭐가 쟁겨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래 놓고 더 미련

을 가진들 (정계 활동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절구절하면 사람만 더 추하게 마무리된다"라고 했다.

지도부는 송 전 대표에게 서둘러 귀국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윤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노동이 고통 돼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 및 제2기 노동중심실천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산림항공기 내구연한 초과시 교체·정밀 진단

김승남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의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齡)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8대 중 27.1%인 13대가 제작된 지 28년이 경과한 헬기로 4대 중



1대가 치명적 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양양 산불 진화 당시 추락하여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탑승자 5명이 사망한 S-58T 헬기(HL9678)는 1975년에 제작되어 47년간 운영된 노후 헬기였다.

김승남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후 산림 헬기에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포용의 시대" 민주 다문화위원회 출범

윤영덕 위원장 "다문화 인식 개선"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을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라는 모토로 개최된 이번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송갑석-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 홍익표·소병철·이병훈·박성준·이동주 등 다수 의원과 여러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다문화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지난 3월 27일 안산 빌라 화재사고로 숨진 나이저리아 남매들이 다녔던 안산의 자이언 대안학교의 선생님과 어린이들 1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주배경 주민 수가 이미 100만, 200만을 넘어 300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포용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도 철저하게, 정책도 많이 내달라"고 말했다.

윤영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밝히며,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정의당 합의...정의 '선 수사·후 특검' 입장 선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들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전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

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법 관련 세부 내용을 두고는 양당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先) 수사·후(後) 특검'이라며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입장을 선화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010-2288-0849 / 062-511-0849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